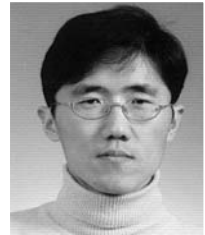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확산 방안

The Activation of Recycling of Plastic Films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200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으로 필름류가 포함되어, 그동안 재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생활폐기물 중 필름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필름류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름류 포장재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분리배출 표시제도도 동시에 도입하고 있다.

필름류 폐기물은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크며, 처리하기도 쉽지 않아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관리하기 까다로운 폐기물에 속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원과 에너지로서의 잠재성은 무척 높아 폐기물로 단순 처리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을 주는 물질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필름류 포장재가 EPR 대상품목으로 재활용되기 시작하였을 때, 시민단체들은 이것은 한국사회가 자원순환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며 이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실제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EPR 실시 이후 1년 반 정도가 경과하면서, 필름류 포장재 폐기물의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의 전 단계에서 당혹스러운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자칫 어렵게 시작한 필름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자초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두 가지 현상에서 극명하게 노출되었다.

작년 연말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한 것들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에서 이미 2004년 의무량을 다 달성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여 실랑이가 벌어진 적이 있다.

이 당시에는 임시방편으로 해결이 되긴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올해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계속 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선별업체에서 수거선별하는 양과 EPR 의무량과의 괴리가 생겨 선별업체에서 수거선별하는 양에 대해서 모두 생산자들이 보조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배출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분리배출표시를 보고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나 수거업체에서 이를 수거해 가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시민들은 혼란을 넘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난마처럼 꼬여있는 필름류 재활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산자들에게 재활용 의무를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이다.

현장에서 수거선별할 수 있는 양과 생산자들이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활용 의무량이 큰 괴리가 발생한다면 이는 여러모로 큰 문제이다.

사실 생산자들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재활용 업계 및 전문가들은 투명성과 객관성 부족을 들어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재활용 의무율 품목에는 필름류에 대한 독자적인 항목이 없다.

단지 기타합성수지류로 되어 있어 복합재질 용기류와 필름류가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

선별단계에서 선별이 다르게 된다면 이 두 항목을 분리하여 의무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재활용 준비비용도 이에 맞추어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수거선별할 수 있는 양은 모두 의무량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활용 의무량을 충분히 높여야 한다.

재활용 의무율 혹은 의무량을 부과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정부와 생산자사이의 협상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한 합리적,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정부, 전문가, 재활용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기구에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EPR 대상품목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합성수지류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높다.

현재 필름류가 재활용되는 과정을 보면 필름류 포장재 뿐만 아니라 일회용 비닐봉투, 기타 복합 플라스틱류가 함께 혼합되어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 방법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품목들이 EPR 대상품목에서 제외될 필요는 없다. 당연히 함께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PVC 문제도 절박하다. PVC 재질이 재활용 과정에 혼합되면 재생연료의 질이 떨어져 수요처 확보에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PVC 재질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PVC 재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선별단계에서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투자가 필요하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물론 중요하다. 필름류 안에 음식물이나 다른 이물질을 넣어서 배출하는 것은 재활용단계에서 많은 부담을 안긴다. 따라서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시민홍보가 더 필요하지만, 위에서 제기된 문제해결이 먼저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수거선별이나 재활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시민들의 분리배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필름류 재활용 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정부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만큼 사전준비를 소홀히 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 생산자, 현장전문가, 재활용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모여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